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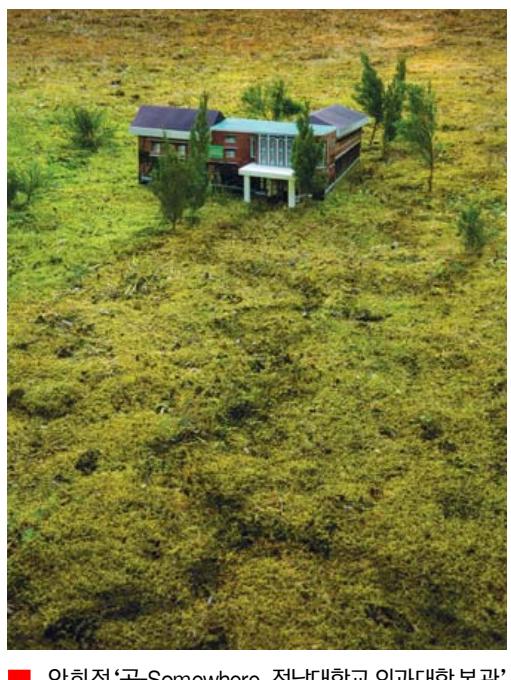
# 사진작가 6인의 시선…다시 마주한 기억들, 공간을 담다

하정웅미술관·'포럼 디세뇨' 공동주최 '광주와 근대정신' 展…8월 17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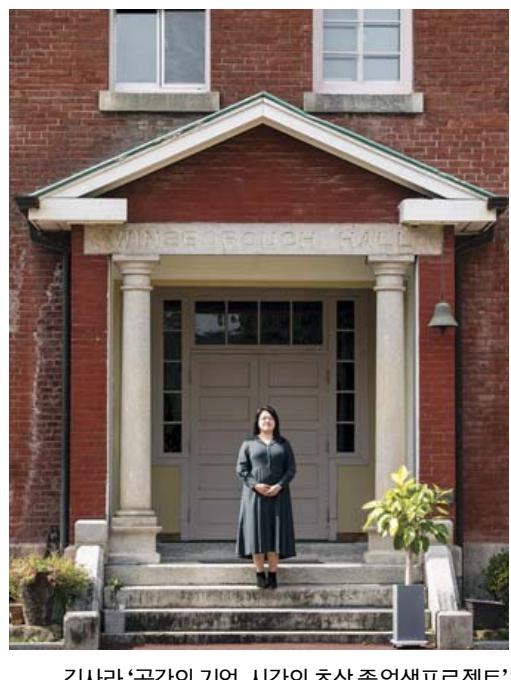
'전통과 보존'…지역 근대사·등록문화재 현대적 관점 재해석  
광주의 문화유산 새롭게 재조명, 시대적 정체성·시각적 성찰

광주의 근대문화유산이 사진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다. 전통을 기록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사진작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는 8월 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리는 미술단체 초대전 '광주와 근대



안희정 '곳-Somewhere\_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김사라 '공간의 기억, 시간의 조상 출입생프로젝트'



박일구 '조선대학교 부숙중학교 구교사'



이세현 '푸른 낮 붉은 밤\_구 무등산 관광호텔#01'



김효중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4-6'



이정록 '구수피아여학교, 커티스메모리얼홀2'

정신'이다. 이번 전시는 지역 사진예술 단체 '포럼 디세뇨'(대표 박일구)와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포럼 디세뇨’는 그동안 광주 지역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전시를 이어오며, 전통의 보존과 현대적 해석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의미 있는 문화적 실천을 자축해왔다.

이번 전시 역시 광주에 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예술적 해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근대문화유산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와 근대정신’은 전시기획자이자 작가인 정철호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광주의 근대화 시기를 함께해 온 등록문화재를 주제로 기획된 전시다.

참여 작가는 이세현·김효중·이정록·김사라·

박일구·안희정 총 6명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으로 문화유산의 흔적을 재해석한 사진작업을 선보이며, 시각적 성찰을 이끌어낸다.

김사라는 학창시절 기억이 담긴 문화유산 장소에 졸업생을 초대해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는 순간을 담아낸다.

김효중은 광주 장덕동에 위치한 근대 한옥의 밤 풍경에서 ‘문’이라는 경계의 상징적 존재를 통해 근대 건축과 우리를 연결 짓는 관계를 탐구한다.

박일구는 문화유산을 광주 근현대 역사를 해석하고 기억하는 상징적 장소로 보며, 건축적 요소에서 광주가 지나온 시대적 정체성을 발견해낸다.

안희정은 문화유산을 활영한 이미지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장소적 정체성을 주변으로부터 분리하며 새로운 공간에서 문화유산을 마주하게 한다.

이세현은 문화유산을 다양한 빛으로 조명하며 장소가 지닌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한다. 이정록은

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문화유산의 장소적 구조와 사물을 응시하게 한다.

전시를 기획한 정철호 작가는 “작가들이 바라본 광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통해 우리가 이 유산들과 맺어온 관계를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로 기억되는 장소인지 성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의 근대문화유산이 현대적 의미를 지닌 문화자산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되길 기대한다”며 “이는 지역의 사진작가 지원과 미술작가 창작지원 활성화 등 지역미술문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부터 지역 미술 그룹과의 협업 전시를 본격화하며, 지역 작가의 창작 지원과 미술계 소통 확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공동기획은 2023년 12월 사진전시관 폐관으로 전시 기회가 줄어든 지역 사진계의 상황을 고려해 마련돼 더욱 의미를 더한다.

/최명진 기자

## ‘한국 최초 우주인을 만나다’

국립광주과학관, 오는 28일 이소연 박사 토크 콘서트

‘한국 최초 우주인과의 만남’

국립광주과학관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상상홀에서 특별 토크콘서트 ‘우주인 이소연(사진) 박사와의 만남’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체 투영관에서 개최되는 ‘2025 둠 영화제’의 사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영화제에서는 ‘우주 여행’을 주제로 한 다양한 둠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이소연 박사는 2008년 소유즈 TMA-12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향해 11일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각종 실험을 수행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비행사다. 현재까지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토크콘서트는 사회자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우주비행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은 물



론 관객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주로 보내는 꿈 엑스’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참가자가 작성한 엑서는 국제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 ‘뉴 셰프트’에 실려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게 된다.

행사를 맡은 윤요셉 연구원은 “우주인을 만나는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 지평선 너머, 빛으로 이어진 한국과 몽골

이이남 작가, 울란바토르 비엔날레서 개인전 성료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명예 초대작가로 참여한 ‘2025 울란바토르 비엔날레’ 개인전이 몽골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는 지난 8월부터 20일까지 울란바토르 중심부에 위치한 칭기즈칸 국립박물관 8·9층에서 진행됐다.

이 작가는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잔란한 빛’의 고고학을 주제로 총 10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한몽의 빛-해’와 ‘한몽의 빛-달’은 박물관 입구에 마주보게 설치돼 양국의 자연관과 세계관이 ‘빛’을 통해 연결되는 연출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비엔날레 기간 중 칭기즈칸 국립박물관은 8층에 전시된 작품 ‘지평선 너머’를 공식 소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품은 한국과 몽골의 역사와 감성을 시각화한 대형 미디어 설치작으로,

몽골의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기준점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후속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 울란바토르시는 이 작가에게 ‘몽골의 하루’와 칭기즈칸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배’를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 신작

을 추가로 의뢰했다. ‘몽골의 하루’는 2028년까지 유럽, 미국, 일본 등 순회 예정인 국제 전시에서 몽골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 작가는 오는 9월 14일 울란바토르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몽골 음악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콜라보 공연도 선보인다.



이이남 작가는 “서로 다른 곳에서 떠오른 해와 달이 결국 같은 빛으로 이어지듯, 이번 전시가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입니다.